

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다 교수는 19세기 말 ~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활동한 독일인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 „Globetrotter, Abenteurer, Goldgräber - Auf deutschen Spuren im alten Korea“를 집필하였습니다. 본인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그렇기에 독일어판보다 더 많은 사진자료가 수록된 한국어판이 출판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한국어판은 1883년 11월 26일 조독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독일과 한국이 수료를 맺은 지 정확하게 130년이 지난 올해 출판됩니다.

한국과 독일의 관계는 외교, 경제, 학문, 기술, 문화, 종교,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독일인들이 그 초석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다 교수는 그들의 활동과 업적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.

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다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과 독일이 우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,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과 독일이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준, 큰 업적을 남긴 독일인들을 인상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.

“뿌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”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. 이 속담처럼 한독 관계의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독일과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같이 성장하고,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.

더욱이 오늘날에는 독일과 한국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, 글로벌한 관점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로 그 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. 1883년 독일과 한국이 체결한 조독수호통상조약은 2011년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약의 체결을 위해 독일 정부와 독일 의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

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다 교수가 한반도에서 활동하였던 독일인들의 업적을 연구하여 저술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. 이 책은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나간 인물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하르트무트 코슈(Hartmut Koschyk)

독일연방하원의원
독일연방재무부 차관